



## 과거와의 화해 At peace with the past

팀 마이어스(Tim Myers)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넬 (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1년 8월 8일

과거에 대해 불만스러우십니까? 당신이 택하였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밤에 깨어있도록 할 수 있고 우리가 낮 동안에도 활동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회가 쌓이면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만족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말은 이미 입에서 나갔고, 행동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되짚어가 이미 과거가 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분석하고 기억을 걸러내는 것을 배우라는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피해자로 영원히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만회하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속죄하고, 더 나아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배우는 것이 열쇠입니다.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에서 메리 베이커 에디는, “외관상의 부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하나님, 즉 신성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무지이며, 그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조화를 복원한다.”(390 쪽)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후회를 느끼는 부조화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무엇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온전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실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한 순간도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남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상존하는 사랑으로 알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일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 안의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메리 베이커 에디는 *과학과 건강*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씁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이상을 구할 수도 없고, 그보다 더 높이 바라볼 수도 없으며, 그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없다.”(6 쪽)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창세기 제 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에서 동 떨어져 있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저지른 경험으로 인해 후회로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완전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영문학사로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나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내가 살던 근방에서는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낙심했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건설 사업체에 자리를 제의하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첫 해가 끝날 무렵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은 진짜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적자상태이었고, 나는 좀 더 창의적일 수 있는 직장과 지적으로 더 자극이 되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가 교직을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었다는 것에 대해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은 삼 년 동안 종종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였고, 늘 후회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이 많았습니다. 몇 번 나는 직장에서부터 귀가하였을 때 교사가 되려는 나의 목표로 돌아갈 새로운 계획을 아내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안의 모든 피고용인은 하나님에 의해 그 자리에 배치되었고 각자의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건설업의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내 아버지와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이해하셨고, 해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발견될 것이라고 몇 번 제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은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모든 면이 **그분**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전환점은 내가 우리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지부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자리에 선출되었을 때 왔습니다. 그것은 삼 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의 공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설 회사에서 매우 바쁠 때였지만, 이 새로운 임무가 상당한 진지한 연구와 기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수요일 저녁 모임에서 읽을 자료를 준비하고 일요일 예배를 위해 연습하는 동안 성경과 *과학과 건강*에 나 자신을 몰두하여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모임들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또한 나의 상황에 대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진정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창조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에 대한 더욱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사업 안의 모든 피고용인이 **하나님**에 의해 그 자리에 배치되었고 모두 각각 자신의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은 나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로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 비탄해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만일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질적 기록이란 그릇된 묘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업을 지속하였습니다 – 그리고 변화는 진정 왔습니다. 내가 교회 임무의 임기를 마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적자를 보지 않았고, 회사에서의 나의 말은 책임은 더 커졌으며, 다음 몇 년 동안에 걸쳐 뛰어난 건축가 몇 사람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여러 개의 중요한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삼 년간의 집중적이고 기도에 찬 공부가 우리 회사를 계속 축복하였습니다. 나는 공부와 기도를 계속하였고, 그 기도들이 내 아버지의 기도와 함께, 사업상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적자에 빠지지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않았고, 13년 후 우리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 그 회사를 닫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후회 없이, 사업과, 내 아버지와 나란히 일한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누가복음 2 장 49 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더 큰 깨달음에 대한, 오로지 가슴 충만한 감사함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미래가 십대 청소년 센터에 일하는 것이나 갈등 해소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교도소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노숙자 시설에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학교 교사는 한 번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에디 여사는 자서전에서, “인간적 역사는 수정되어야 하며 물질적 기록은 말소되어야 한다.”(회상과 자기 성찰, 22 쪽)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 기록이란 그릇된 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참된 묘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과거 행동들에 대한 모든 후회를 발견합니다. 이 기록은 정원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창세기 제 2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그 한 쌍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설득시키는 악한 뱀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상 회복과 구원을 가져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후회에 대한 원래의 개념을 발견하는 곳일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정원에 숨어서, “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었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인류의 모든 문제들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에디 여사는 이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나타내는 우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물질적 렌즈를 통해 본 창조론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제 1 장의 영적 기록과 완전한 반대이며, 창세기 제 1 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영적 렌즈를 통해서 보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영적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물질의 제한적 요소들이 말소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역사가 신성의 것과 연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이제까지 항상 선(善)의 표현이었음을 봅니다. 과거 일들에 대한 서글픔이 우리 삶으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물질적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도입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그녀의 저서 가운데 하나에서, “기도는 **그분[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도는 선(善)함과 선행에 대한 각성된 갈망을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선(善)과 권능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을 하도록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No and Yes, 39 쪽)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항상 해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을 압니다. 그 영적인 아들과 딸은 후회 할 것도 없고, 파란만장한 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류의 기도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개성시켰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함과 권능을 실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우리의 참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기도는 모두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12년간의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하혈의 역사를 가진 여인이었든, 평생 소경으로서의 고통을 받던 남자이었던, 또는 자신의 처신으로 인해 돌을 맞을 지경에 처했던 간음한 여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상 회복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항상 그랬듯 지금도, 전능하시고 모든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것을 도우실 때,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해당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처한 많은 상황에서 맨 처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 장 25~33 절 참조) “내가 왜 배에서 뛰어내렸지?”라고 그가 생각했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항변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 장 33 절 참조) 당신은 베드로가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느냐는 따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 장 66~72 절 참조) 우리가 그의 이력을 가지고 판단 한다면, 그 일은 아마도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후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용서와 사랑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세 번의 확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상으로 나가 “나의 양을 먹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 장 15~17 절 참조)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지시대로 행하였음을 발견합니다. 후회의 순간들을 뒤로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심뿐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있었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런 완전한 변화의 예입니다. 그는 단순한 하나의 어부로부터 교회의 지도자요 놀라운 치유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완전한 변화의 권능이 우리 모두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어떤 일을 과거에 했다거나, 또는 피해를 당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 역사의 움직일 수 없는 일부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헌신하면, **하나님께** 대해 더 배우기를 돕는 기도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비난도 없고, 오로지 개심과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우리가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전능하고 모든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써 말소 될 수 있습니다.

*팀 메이어스는 캘리포니아주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에 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다.*